

# 기능 인력 공급 감소로 임금 상승예상, 2~3%대 오를 전망

- 내국인 기능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 숙련 인력 일일임금 평균 12.8만원 예상 -

심 규 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gbshim@cerik.re.kr

## 건설 투자 및 취업자 동향

**건** 설 투자는 2013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69.5조원, 하반기에는 5.6% 증가한 8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비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올해 들어 6월, 7월, 9월을 제외하고는 2012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2007년부터의 7년 간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연초에 낮게 출발하여 6월부터 예년의 중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전체 산업의 취업자 중 건설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2월 6.7%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7%대를 온전히 넘어서지는 못하고

고 있다. 건설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취업자 수의 증가세가 미미한 원인은 불법 취업 외국인 근로자(2011년에 12만 명으로 추정)의 존재에서 찾아야 할 듯하다. 이들은 내국인 근로자를 대체하면서 실제로 건설 현장에는 존재하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누락되거나 일부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직종별 임금 '상승세'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하루 8시간 환산 임금)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건설 근로

건설업 취업자 수 추이

(단위 : 천명, %, 조원)

항목	시기	2011	2012	2013								
				1	2	3	4	5	6	7	8	9
취업자	전(총)산업	24,244	24,244	24,054	23,984	24,514	25,103	25,398	25,478	25,473	25,291	25,466
	건설업	1,751	1,773	1,671	1,604	1,693	1,778	1,807	1,818	1,792	1,746	1,788
	건설업 비중	7.2	7.2	6.9	6.7	6.9	7.1	7.1	7.1	7.0	6.9	7.0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0.1	1.3	-2.8	-5.6	-2.9	-0.5	-0.7	0.2	0.6	-0.4	0.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각 월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 특집 2014년 건설경기 전망

자의 주요 직종별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것은 상반기의 건설 투자 증가에도 일부 원인이 있지만, 보다 큰 원인은 건설 기능인력의 고령화로 표출되는 인력 풀의 약화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 조사는 주로 한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력 풀이 약화되면서 숙련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5월 시점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비숙련 인력인 보통 인부의 임금은 8만 3,97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상승했고, 11개 주요 직종이 포함된 숙련 인력의 평균 임금은 12만 2,911원으로 9.3% 상승했다.

주요 직종별로 살펴보면 2013년 5월 현재 일일 임금이 가장 높은 직종은 비계공(15만 673원)이고 그 뒤를 형틀목공(13만 2,235원), 타일공(13만 375원), 철근공(12만 7,758원), 콘크리트공(12만 3,616원), 건축목공(12만 3,200원), 미장공(12만 3,123원) 등이 따르고 있다. 1년 간의 직종별 일일 임금 증감을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형틀목공의 경우 23.0%가 올라 2만 4,729원 상승했고, 콘크리트공의 경우 10.8%가 올라 1만 2,057원이 상승했으며, 비계공의 경우 10.2%가 올라 1만 3,933원 상승했다. 2012년 5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임금이 하락한 직종은 없다.

### 내년 기능인력 수급 모두 줄어든 듯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14년 국내 건설 투자가 0.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건설 생산물의 파생 수요인 건설 기능인력의 수요는 2013년에 비해 약 0.3% 감소한 125만 8,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속되는 고령화 추세와 젊은 층의 진입 기피의 심화, 그리고 외국 인력에 의한 대체로 공급은 0.9% 줄어 112만 1,000명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투자의 증가는 타 산업에서 이직한 실업자들을 건설 현장으로 불러들이는 효과도 있으나 지속되는 신규 인력의 진입 기피로 인한 고령화와 외국 인력에 의한 내국인 대체의 추세를 되돌릴 정도는 아닐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건설 기능인력의 주요 직종별 임금 동향(하루 8시간 기준)

(단위 : 원, %)

직종명	직종별 8시간 기준 임금 추이								전년 동기비 증감 (2013.5/2012.5)	
	2009.9	2010.5	2010.9	2011.5	2011.9	2012.5	2012.9	2013.5	증감액	증감률
보통 인부	68,965	70,497	72,415	74,008	75,608	80,732	81,443	83,975	3,243	4.0
숙련공 평균	98,726	99,896	101,314	103,785	107,563	112,435	114,885	122,911	10,476	9.3
형틀목공	100,730	101,932	104,308	105,805	114,466	107,506	115,082	132,235	24,729	23.0
건축목공	96,310	98,254	99,722	106,641	104,682	113,281	113,962	123,200	9,919	8.8
비계공	118,515	117,090	120,681	123,972	126,924	136,740	141,535	150,673	13,933	10.2
조적공	95,916	100,263	102,200	104,754	109,297	117,597	116,217	120,532	2,935	2.5
미장공	95,659	98,280	100,562	103,210	107,403	112,225	115,095	123,123	10,898	9.7
방수공	80,553	81,638	82,178	77,442	81,612	88,799	87,417	92,902	4,103	4.6
타일공	101,048	104,474	105,611	110,585	115,534	120,603	123,611	130,375	9,772	8.1
콘크리트공	103,780	100,947	103,765	102,951	107,477	111,559	117,989	123,616	12,057	10.8
배관공	89,975	91,564	92,988	94,293	95,187	103,242	104,844	112,679	9,437	9.1
도장공	92,700	95,987	93,119	100,929	105,730	106,840	109,720	114,929	8,089	7.6
철근공	110,803	108,427	109,325	111,058	114,884	118,389	118,264	127,758	9,369	7.9

자료 : 대한건설협회, 각 연도.

2014년 건설 기능인력 수요·공급 및 임금(8시간 기준) 전망

(단위 : 조원, %, 천명, 원)

구분	2012년			2013년(e)			2014년(e)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건설 투자	66.1	76.9	143.0	69.5	81.2	150.7	151.0	
건설 기능인력 (내국인)	수요	1,284	1,297	1,291	1,252	1,272	1,262	1,258
	공급	1,178	1,175	1,177	1,134	1,129	1,132	1,121
일일 임금 (8시간 기준)	숙련 인력	112,435	114,885	113,660	122,911	123,975	123,443	127,856
	비숙련 인력	80,732	81,443	81,088	83,975	84,053	84,014	86,259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								
건설 투자	-1.9	-2.4	-2.2	5.2	5.6	5.4	0.2	
건설 기능인력 (내국인)	수요	4.4	4.8	4.6	-2.5	-1.9	-2.2	-0.3
	공급	1.9	3.7	2.8	-3.7	-3.9	-3.8	-0.9
일일 임금 (8시간 기준)	숙련 인력	8.3	6.8	7.6	9.3	7.9	8.6	3.6
	비숙련 인력	9.1	7.7	8.4	4.0	3.2	3.6	2.7

주 : 1) 건설 투자는 2005년 불변가격 기준임.  
 2) 건설 기능인력 수급을 내국인으로 국한한 이유는 외국인의 경우 도입 규모 및 단속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책적 변수이기 때문임.  
 3) 일일 임금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숙련 인력 임금은 11개 주요 직종(형틀목공·건축목공·비계공·조적공·미장공·방수공·타일공·콘크리트공·배관공·도장공·철근공)의 평균 임금이며, 비숙련 인력 임금은 보통 인부의 임금을 의미함.  
 4)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수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공급 주도형 임금 상승세 지속 예상

2014년에 기능인력 수요는 약간 감소하나 국내 기능인력 공급은 그보다 더 크게 줄어 공급 감소가 주도하는 임금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숙련 인력의 평균 일일 임금은 전년 대비 3.6% 증가해 12만 7,856원이 되고, 비숙련 인력의 경우 전년 대비 2.7% 증가해 8만 6,259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인력 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이 반드시 필요한 직종의 인력은 더욱 희소해져 임금이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전망은 외국 인력의 공급이 정부의 의도대로 통제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의 과도한 내국인 일자리 대체를 예방하고자 '건설업취업등록제'를 통해 건설업종 차원의 허용 인원을 규제하고 있다. 이것은 방문취업 동포(H-2)

를 대상으로 건설업 취업 허용 인원 상한선을 설정하고, 건설업 취업 등록 및 취업 교육을 거친 동포에게만 건설업 취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3년도 건설업취업등록제 도입 규모를 5만 5,000명, 그리고 고용허가제(E-9)는 1,600명으로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많은 불법 취업자가 존재해 건설 기능인력 수급과 임금의 변화에 영향을 줄 실질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우리 건설 노동시장은 합법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와 불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제 정도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정도로 취약하다. 따라서 건설 노동시장의 건전성과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생각한다면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대한 규제 이전에 내국인 청년층 진입 촉진과 숙련 인력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CERIK